

(※민=더불어민주당, 혁=조국혁신당, 진=진보당, 무=무소속, 사진은 의석순)

10·16 재선거 누가 뛰나

# 군수 선거 때마다 무소속 변수 민주 강세 속 이변 나오나 주목

## 영광군수

민주 vs 조국혁신당 vs 진보당

민주, 공천 비방·잡음 변수

존재감 압도하는 후보 없어

영광 민심, 당보다 인물 중심 선택

각당 지도부 발길... 표심 확보 총력

영광은 10·16 재·보궐 선거구 중 가장 '핫'한 선거구다.

지난해 10월 치러졌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정권 심판론'과 '야당 심판론'이 맞붙으면서 전국선거 못지 않게 풍성했다면 영광군수 선거는 호남의 '집권여당'이나 다름없던 민주당 후보에 맞서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나머지 '야권' 세력 정당 후보들 간 경쟁 구도가 형성되면서 중앙 정치권에 서도 주목하는 뜨거운 지역으로 떠올랐다.

여기에 민주당 후보 공천 경쟁 과정에서 빚어진 비방·잡음, 전 군수 부인을 언급한 여론조사까지 나

들면서 지역에는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민주당에 대한 지지세가 뚜렷한데다, 압도적 존재감을 갖춘 후보가 보이지 않다보니 박진감이 떨어지는 듯 보이지만 지켜볼만한 이슈는 적지않다는 게 정치권 분석이다.

우선, 지난 총선(22대) 당시 영광지역 주민들은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이던 더불어민주당연합에 40.14%의 지지를 보여준 반면, 조국혁신당(39.41%)에도 힘을 실어줬다.

총선과 다른 지방선거에 대한 지역민 투표 성향도 눈여겨볼 변수다.

지난 8회(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무소속(강종만), 6회(2014년) 지방선거때도 무소속(김준성) 후보에게 지역을 맡겼다. 7회(2018년) 때도 무소속(김준성) 후보가 민주당으로 옷을 갈아입고 당선된 케이스다.

지난 2022년 사·도의회 선거에서도 진보당(오미화)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지방의회에 입성했다. 지역선거의 경우 민주당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민심이 존재한다는 얘기다.

지역민의 상치한 자존심이 쟁쟁아할 이슈다. 강종만 전 군수는 지난 2008년 뇌물수수로 군수직을 상실했다가 이번에 선거법위반 혐의로 군수직을 잃



▲장세일 (60·민·전 전남도의원, 전 민주당 전남도당 부위원장)



▲장현 (67·혁·김대중재단영광군지회 회장, 전 호남대 교수)



▲이석하 (53·진·진보당 영광군 지역위원장, 전 영광군 대마면 북평2리 이장)



▲김기열 (58·무·사단법인전남연예예술인총연합회 영광군지회 이사)



▲양재휘 (64·무·영광 기본소득 연구원장, 영광 신재생에너지 주민 참여 협동조합장)



▲오기원 (58·무·영광 난연합회 회장, 호남지역소별대응지주인 참여 협동조합장)

었고 다른 군수도 비리 혐의에 연루된 바 있다.

조국혁신당이 호남 정치 활성화를 위한 비교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영광에 월세방을 마련, 추석 연휴기간 영광에 머무르면서 '숙식 선거운동'에 들어간 점도 이러한 지역 정서를 감안했다는 게 정치권 판단이다.

조국 대표도 "민주당이 집권여당으로 같은 당이다 보니 지방 행정부와 의회 사이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언급한 뒤 "중앙 뿐 아니라 호남에서도 정치 활성화, 정치 혁신의 실력을 보여드리겠다"며 민주당과 비교해 선택해 달라며 읍소하고 있다.

민주당도 후배 선출을 위한 공천 경선을 통해 후보를 확정하는 한편,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영광을 찾아가 하면, 박지원 의원을 선거대책위원

장으로 임명하는 등 조국혁신당의 바람을 잠재우고 압도적 지지를 확보해나갈 것이라는 구상이다.

민주당에서는 장세일(60) 전 전남도의원이 공천 경쟁에서 이동권·장기소 후보를 누르고 후보로 결정됐다. 장 후보는 영광 토박이로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정치인임을 부각시켜 유권자들에게 다가간다는 전략이다.

그는 민주당 지도부와 전남도당의 응원과 지원을 업고 추석 명절을 시작으로 본격적 지지 기반을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장현 전 호남대 교수가 후보로 나선다. 장 후보는 4명의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하는 100% ARS 여론조사 방식의 1차 경선과 결선 투표를 거쳐 후보로 결정됐다. 장 후보는 최근 민주당 영광군수 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중도 사퇴한 뒤

민주당을 탈당해 혁신당에 입당, 후보가 된 케이스다.

진보당에서는 일찌감치 이석하(53) 영광군지역 위원장을 후보를 내고 표발을 갈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0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영광을 진보당 출신 첫 군수 배출 지역으로 만들 것"이라며 표심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영광군 대마면 이장을 지내면서 30년 농민회 활동을 해온 점 등을 들어 누구보다 지역 현안과 농민들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책임자임을 내세우고 있다.

무소속 후보로는 양재휘(64) 영광군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 협동조합장, 오기원(58) 호남지역소별대응본부장, 김기열(58) 전남예총 영광군지회 이사 등이 뛰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민주 vs 조국혁신당 불꽃 승부 총선 비례 1.25%차 '예측불허'

## 곡성군수

조국 대표, 월세 살이 선거운동

조국혁신당 거센 도전에 긴장감

민주 조상래, 당 시너지 효과 기대

혁신당 박용두, 지역 지지세 단단

민주 탈당파 무소속 선전도 관심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곡성 재선거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불꽃 튀는 한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곡성지역은 22대 총선 당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대등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양 당 모두 표심 잡기에 전력하고 있다.

앞선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서 민주당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연합은 41.13%, 조국혁신당은 39.88%를 곡성에서 얻었다.

조국혁신당의 등장으로 유권자의 선택지가 늘어나면서 민주당은 '뒤틀린 사수'에, 조국혁신당은 '탈환'을 위해 각각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또 민주당 탈당파 등 무소속 후보들의 선전 여부도 관점 포인트로 손꼽힌다.

그동안 '공천-당선'으로 여겨졌던 민주당도 조국혁신당과의 양당 대결 구도가 균형을 따라 긴장태세를 갖추고 총력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예상과는 달리 조국혁신당의 바람이 미풍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총선 당시에는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공식이 성립했지만 지방선거인 재선거는 다르다는 주장이다.

지역정가 한 관계자는 "조국혁신당의 선전이 예고되고 있지만 혁신당이 힘을 쓸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총선과는 달리 재선거는 지역 단위가기 때



▲조상래 (66·민·곡성도정공작대 표, 전 전남도의원)



▲박용두 (56·혁·혁신당 농어민역거리위원장)



▲이상로 (64·무·전 목포대 교수)



▲정환대 (64·무·전 전남도의원)

문"이라고 말했다. 또 "곡성지역은 유권자 수가 적어 각종 선거에서 '조작의 영향'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정당도 중요하지만 후보들의 '지역 내 영향력'이 본선에서 결정적인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조상래(66) 전 전남도의원은 세 번째 도전이며, 곡성군의회를 시작으로 전남도의원, 곡성군체육회장 등을 역임했다.

조 후보는 특히 제8회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나서 53.59%를 받은 이상철 전 군수를 뒤따라 46.40%의 높은 지지율을 얻은 전적이 있어 민주당

입당으로 반계 될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조국혁신당에서는 박용두(56) 혁신당 농어민역거리위원장이 후보로 나선다.

박 후보는 섬진강 수해피해 곡성대책위 집행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곡성지역에서 지지세를 다지고 있다.

양당은 재선거 여론몰이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추석 연휴를 앞두고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12일 혁신당 곡성군수 후보로 결정된 박용두 예비후보를 두고 "곡성군수 재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박 예비후보가 납득할 만한 해명 없이 선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논평을 냈다.

민주당은 "곡성의 주인인 군민과의 엄중한 약속을 손바닥처럼 뒤집을 수 있는 시장바닥의 호박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라며 "약속을 호박 뒤집듯 하는 사람의 말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혁신당 전남도당은 "박용두 후보에게 먼저 입당을 제안한 것은 민주당이었고, (입당이 무산된 후) 혁신당 변화를 두려워하는 민주당의 행태에 박용두 후보는 불출마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맞붙을 놓았다.

혁신당은 "박 후보는 조국 대표의 호남 정치개혁을 위한 삼고초려에 조국혁신당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며 "혁신당에 대한 전남도민의 지지와 상승세가 두려워 비방으로 시작하는 선거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무소속으로 나선 이상로(64) 후보는 목포대 교수를 지낸 뒤 곡성미래연구소 소장을 맡으며, 지역 현안을 연구하는 등 곡성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민주당의 100% 국민 경선 방식에 반발하며,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정환대(64) 후보는 재선 전남도의원으로 제9대 도의회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하는 등 정치 경력을 부각하고 있다.

10·16 곡성군수 재선거는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거쳐 다음달 3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다. 사전투표는 다음달 10·11일이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농협

## 아름다운 동행

#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안 환전·해외송금을 맡히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박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타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